Salutogenic(건강생성적) 건축은?



문창호 논설위원

(주)건축사사무소 균형 대표
mchangho55@gmail.com

- 1978
  서울대 건축과 졸업
- 1980
  동 대학원 공학석사
- 1989
  동 대학원 공학박사
- 1989-1995
  순천대학교 건축과 교수
- 1995-2021
  군산대학교 건축과 교수
- 2021-현재
  군산대학교 건축과 명예교수
- 2008-2010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장
- 2009-현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부회장
- 2014-2016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 2016-2022
  한국건축가협회 전북지회장
- 2024-현재
  전북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부위원장
- 2013
  건축의 날 대통령 "표창"
- 2003
  완석루(전북건축문화상 금상)
- 2014
  난재루(전북건축문화상 우수상)
- 2019
  안향재(전북건축문화상 금상)
- 2023
  전북예총 하림예술상 본상

들어가는 말

2009년 싱가폴에서 열린 6차 WCDH(World Congress on Design and Health)에 참석 이후, 학회 창립자인 오랜 지인 Alan Dilani 교수의 초청으로, 지난 9월 말 말레이시아 쿠칭(Kuching)에서 개최된 15차 WCDH에 참석하였다. 주제는 "The Mission for Salutogenic Healthy Cities - Fostering Healthy Environments for Healthy People"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Salutogenic(* 우리말로는 '건강생성적'이라고 옮길 수 있으나, 아직 건축 분야에서 널리 통용되는 번역어는 아니어서 이 글에서는 Salutogenic으로 표기하고자 한다)이다.

건축 및 도시, 보건의료, 지구환경 등 많은 발표에서 Salutogenic이라는 개념이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다루어졌다. 필자는 "An Integrated Smart Healing Environment Framework for Ward Remodeling: A Case Study of a Korean Public Hospital" 논문을 발표하였다. 비록 논문 제목에 Salutogenic 이란 단어는 없지만, 논문의 내용에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Salutogenic의 개념

Salutogenic은 라틴어 salus(건강)와 그리스어 genesis(기원·생성)를 결합한 말로, 의료사회학자인 Aaron Antonovsky가 발전시킨 Salutogenesis(건강생성론)에서 출발했다. 기존의 Pathogenic(질병발생론적) 접근이 "무엇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가?"를 묻는다면, Salutogenic 접근은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가?"를 질문한다.

예를 들면, 병원 건축 계획에서 감염 방지, 낙상 방지, 치료 효율성처럼 위험을 줄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 공간 자체가 환자의 회복력, 안정감, 자율성, 사회적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Salutogenic의 핵심적인 개념은 일관성의 감각(Sense of Coherence)인데, 이는 이해 가능성(Comprehensibility, 환경을 이해할 수 있음), 관리 가능성(Manageability, 스스로 대응하고 조절할 수 있음) 및 의미성(Meaningfulness,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음)의 3가지로 구성된다.

건축/도시/지구에서의 적용

좋은 Salutogenic 건축의 조건은 첫째, 명확한 동선 계획, 공간의 위계 구현, 기능단위 별 색채 구분, 적절한 사인 도입, 랜드마크 설치 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공간의 목적과 위치를 이해할 수 있고, 둘째, 실내의 온도/조명/블라인드 조절, 프라이버시 확보, 공간의 구분 등으로 사용자가 공간을 통제할 수 있으며, 셋째, 자연과의 직간접 접촉, 예술 작품 도입, 목재 같은 따뜻한 재료 적용, 사회적 교류 공간, 친숙하고 인간적인 공간 등의 실현을 통하여 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 건축에서 환자가 길을 잃지 않고 병원 내외를 이동할 수 있고, 환자가 병실의 직접 조명과 블라인드를 조절할 수 있고 원내 취미활동에 참여하며, 창밖의 녹지를 바라보며 편안한 마음을 갖고 지내는 환경을 말한다.

건축에서 범위를 좀 넓혀서, Salutogenic 도시를 생각해 본다. 도시를 단순히 "질병·사고·공해를 줄이는 환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 회복력, 사회적 관계, 일상적 활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환경까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Salutogenic 도시의 조건은 첫째, 명확한 가로체계, 랜드마크, 도시공간 위계, 쉬운 길 찾기 등을 통하여 도시가 읽히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둘째, 보행 접근성, 편리한 대중교통, 근린 서비스, 안전, 무장애 환경 등으로 인하여 주민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선택이나 통제할 수 있으며, 셋째, 커뮤니티 공간, 역사·문화 보존, 자연, 지역 정체성 등을 통하여 장소에 대한 애착과 의미를 느껴야 한다. 즉, 좋은 Salutogenic 도시는 주민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한 곳에 쉽게 갈 수 있으며, 이곳에서 사는 것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도시"일 것이다. 특히, 자동차 중심의 도시 구조, 획일적인 대단지 주거, 부족한 보행·휴식 공간에 익숙해진 우리 도시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Salutogenic 개념을 건축과 도시에서 지구(planet) 차원으로 확장하면, 인간의 건강과 지구환경의 건강을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개인과 지역사회가 에너지·물·자원 관리에 참여하며, 자연을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환경으로 인식해야 한다. 결국 Salutogenic 지구는 인간이 자연과 관계를 맺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 환경을 돌볼 의미와 책임을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https://www.pexels.com/photo/green-trees-and-high-rise-buildings-in-a-city-13916997/)

맺음말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빠르게 발전하였다. 주택, 병원, 학교, 교통시설 등 각종 도시 인프라가 대량으로 공급되었고 건축 기술과 시설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발전은 양적 공급, 경제성, 기능성, 효율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제는 건축과 도시가 얼마나 크고 새롭고 편리한가? 로만 평가하기보다, 그 공간이 사람을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함께 물어야 할 시점이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지역 소멸,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들은 건축이나 도시계획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상에서 걷고, 자연을 접하고, 서로 만나며, 자신이 사는 장소에 애착과 의미를 느끼게 하는 환경은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병원은 환자의 회복을 돕고, 주거는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며, 도시는 사람과 자연,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 수 있다.

Salutogenic 관점은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질병이나 사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수준을 넘어 건축과 도시 자체가 건강과 회복력, 자율성,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거창한 기술이나 대규모 투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쉬운 동선, 걷기 좋은 거리, 가까운 녹지, 자연채광, 작은 휴식 공간, 사용자의 선택권과 같은 일상적인 계획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결국 Salutogenic 건축과 도시가 지향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이나 유행이 아니다. 사람이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스스로 생활을 조절하며, 그 장소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제 '좋은 건축'을 평가하는 기준에 하나를 더할 때가 되었다. 그 건축과 도시가 사람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가이다. "Salutogenic"이라는 다소 낯선 단어가 앞으로 우리 건축과 도시에서는 더 이상 낯설지 않기를 기대한다.